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주민 학습역량 강화

평생학습아카데미 운영

부안군은 주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MOU 체결을 통한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한다.

평생학습 아카데미는 지자체와 대학 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키고 대학의 풍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지역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부안군민 120명을 대상으로 약용식물 자원활용지도사, 치매예방상담지도사, 실버건강댄스지도사 양성과정, 소도구건강운동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 평생학습 아카데미 수료 후 전북대학교 총장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부안군 부안 평생교육 홈페이지(www.buan.go.kr/tba)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수강료는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전액 지원하고 교재비, 재료비 등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1인 1과정 원칙으로 과정당 30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통해 취업 및 일자리 창출, 군민들의 평생 학습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등 평생학습과 삶의 조화로운 부안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북 한국철도공사 정읍관리역

지역아동센터에 해피트레인 제공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정읍관리역(역장 장현호)가 지난 29일 해피트레인 행사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교사 75명을 초대했다.

해피트레인은 코레일에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등에게 기차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해피트레인 행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정읍역에서 기차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경복궁을 관람하고, 코레일과 롯데콘서트홀의 2018 트림음악회 음악으로 마음을 잇다에 참여하는 등 여행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

장현호 정읍관리역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꿈과 희망이 성장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여행의 즐거움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꾸준히 해피트레인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비 4억여원 확보

부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73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산업) 건물 등의 특정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신 재생에너지 지원 공모사업이다.

부안군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에 따라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계획된 청북리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4월경 부안군, 전문기업, 청북리 마을회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6월 공모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공개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9억8300만원(국비 4억7300만원, 군비 4억700만원, 자부담 1억300만원)을 확보했다.

2019년에 부안군 계획된 청북리 일원의 단독주택 102가구, 공공기관 3개소에 태양광 340kW, 태양열 120㎡를 설

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화석에너지 대체효과 104.4TtOE/년, 온실가스 절감 효과 214.4002년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춰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제1금융고 'NH농협은행' 지정

고창군은 차기 금융은행으로 제1금융고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제2금융고 전북은행 고창지점을 각각 선정했다.

지난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21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5개 항목 19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심의·평가했으며, 평가결과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관리 업무능력, 지역사회 기여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NH농협은행이 제1금융고로 선정됐다.

제1, 2금융고 은행은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제1금융고인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금융고인 전북은행은 기금을 취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군의 자금관리와 운용뿐만 아니라 고창군이 군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한반도 첫수도로 도약함에 있어, 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가 지난 27일 올바른 법정기념일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올바른 법정기념일 선정 촉구 결의대회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회장 김원철)는 지난 27일 부안군 백산면에 위치한 백산성 동학혁명백산창의비 앞에서 백산봉기기념사업회 이사 10명을 비롯하여 백산면 이장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법정기념일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는

120여 년 전 반봉건, 반외세, 제국주의, 보국안민의 가치를 들고 1만여 농민들이 모여 농민혁명군 편대를 조직하고 격문과 4대 행동강령, 12개 조 군율을 선포해 본격적인 농민혁명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다.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1894년

에 일어난 개별 사건에 대한 역사적 검증과 거칠 것,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그 역사적 사실을 알릴 것, 국내·외 기념일 제정 사례를 분석해 기념일에 합당한 선정 기준과 원칙을 세울 것, 공문화 과정을 거쳐 기념일을 제정할 것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이달부터,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이달부터 종합민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무휴·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시민들에게 각종 증명 발급 서비스의 편의를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그간 시민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각종 증명서를 관공서에서 발급 받을 수 없어 민원 24시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로써 65세 인구가 25%를 넘는 초고령화 된 정읍시에서는 컴퓨터 미사용자나 공인인증서 미등록자 등이 많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프린터가 없는 가정의 경우 출력 할 수 없어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그간 평일·주간에만 운영했던 무인민원 발급기를 연중무휴·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부동산 등기



부등본, 토지대장 등 86종의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용도를 기재해야 하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시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는 인구 밀집지역인 상동과 수성동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365일·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연지아트홀 간판개선사업 최종 용역보고회 가져

이달 중 실시설계 완료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나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최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연지아트홀 걸어가는 길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유진섭 시장의 주재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관련 전문가, 점포주 대표, 업무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각 점포별 간판 최종시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간판개선사업은 정읍역사거리에서 연지아트홀까지 총 750m 구간이 대상지이다. 이중 정읍역사거리에서 정읍터미널에 이르는 210m 구간은 2016년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간판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2017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총사업비 440백만원(국비 205, 시비 235)을 투입하여 정읍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까지 이르는 잔여구간(540m)의 1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부터 도시재생대학 교육

를 통해 연지상가 상인회의 역량강화와 자생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7년에는 옥외광고물 시범구역 지정과 함께 1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점포주들의 동의를 징구, 개발면담,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점포주들의 의견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0월중에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간판개선사업은 통해 노후되고 무질서한 간판을 우리 지역특성을 살린 조화롭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해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선진 간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간판개선 사업을 점차 다른 구간으로 확대하여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